

경주캠, 행정·기획 업무 자율권 대폭 확대

예산 조정, 인사관리, 연구지원 등 부총장 권한 강화 명실 상부한 자치 운영...“지역종합대학으로 거듭난다”

지난 1월 초 '21세기 동국'을 위한 서울·경주합동 워크샵에서 모인 결론은 '대학 자율화 및 개방화시대에 양캠퍼스가 살아남는 길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제1캠퍼스 중심 업무일괄처리 방식을 이제는 각 캠퍼스의 특성에 맞게 모색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날 워크샵은 양캠퍼스 성원이 21세기 동국 생존을 위해서는 '경주캠퍼스 자치운영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지난달 23일 교무위원회에서는 독자운영의 상당부분이 구체화되었으며, △자율·독자성 확보 영역 △기획처 신설(기획홍보과 기능 격상) △공동위원회의 참여 비율 확대 및 별도위원회 구성 △해의 과전 및 입학 전형 △대학원생 배정인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기숙사 시설확충 △산학 협력관계 연구소 신설 및 기능강화 등을 논의했다.

자율·독자운영 됨으로써 변화되는 것 중 가장 큰 특징은 기획처가 신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획처는 예산조정·인사관리·대외홍보팀으로 나눠져 경주캠의 독자적 사업 및 업무를 기획할 것이다.

또한 사무처 및 교무처는 교육과정변경·신설·입학·학술·연구지원 등에 대한 자치권과 직원인사 및 배치 역사 자율권을 갖는다. 특히 교무처는 교환학생 선발시 경주캠 교수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참석하게 되며, 교원은 자체선발위원회를 거쳐게 된다.

이외에도 교원업적평가 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구성원의 대등한 비율, 연구년 교원의 자체

선발 등이 있다. 산학협력관계연구소로는 △매장문화재 연구소 △중국 경제산업 연구소 △전자상거래 연구소 △난치병 한·양방 치료연구 센터 등이 신설 될 계획이다.

또 대학원 정원 중 경주캠 학생에 대한 정원이 수·가고(실험실습비, 운영비 별도 배정), 국사, 국문, 영문, 불교이동 및 경성계열 등에 부분적으로 배정된다.

이러한 자율권확보 내용 중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독립예산과 부총장의 권한 강화라 볼 수 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건립 원년부터 자체 등록금으로 부총장 권한하에 예산집행이 되고 있으며 경희대의 경우도 87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운영 되고 있다. 경희대의 한 관계자는 "캠퍼스별로 그 특성과 차이가 다른만큼 대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독자



자치권 강화로 경주캠은 명실상부한 지역종합대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2천년도 대외 개방화에 앞서 필수"라고 강조했다. 타대학과 비교했을 때 기간 서울캠에 의존운영 되어왔던 경주캠은 독자운영이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종합대학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계영(컴퓨터공학) 교무처장은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한다.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경주캠의 구성원들은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자치권을 확보한 시점에서 경주캠은 지역캠퍼스로서 갖추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역민들에게 우리 경주캠을 진정한 지역 대학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주캠 구성원 모두가 그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캠퍼스로 거듭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cakra.dongguk.ac.kr

지면안내

☞ 'N세대'는 무엇인가	7면
☞ 서울캠 총학, 2차 총궐기 진행	2면
☞ 장기수 출신 장병래씨를 만나고	4면
☞ 소설 '장백산'이 금금하다?	6면

보리수

자기 객관화

박 경 준(불교대 불교학부)

대결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는 물론이고, 나라 안팎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 두 가지는 그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하나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 탐욕이요, 다른 하나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편협하고도 자기중심적인 이해이다.

우리는 가끔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 잘못이 금방 드러나고 전체적인 상황이 쉽게 이해되는데도, 당사자들은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탓하기를 한다. 이것은 우선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 욕심이 앞서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찍이 중국의 화염가들은 화염의 심오한 사상을 '일월삼주(一月三舟)'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통속적으로 해석해보기로 하자. 휘영청 달 밝은 밤에 김, 이, 박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배를 타고 달 구경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김은 호수 가운데에서 배를 정지시킨 상태로 달을 보고, 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달을 보며, 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를 몰면서 달을 바라본다고 하자. 필시 김은 정지해 있는 달을, 이는 북쪽으로 움직이는 달을, 박은 남쪽으로 움직이는 달을 바라볼 것이다. 달은 분명 하나인데 세 사람이 관찰한 달의 모습은 서로 다를 것이다. 우리가 지금껏 싸우는 것은 이틀 세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리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싸움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독려이 등불을 켜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일월삼주'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너나없이 '자기객관화'의 능력을 키워 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기 객관화는 더 넓고 깊은 지식, 세상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통찰, 그리고 맑고 깨끗한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혜성 박사 초청특강

6일 '21세기 한국인은 무엇을...' 주제로

'21세기에 한국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전혜성 박사의 명사초청특강이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전혜성 박사는 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보스턴대, 예일대, 예일대 교문화연구소 연구부장을 거쳐, 오사카대 민족국제박물관 교환교수를 지냈다.

현재 일본 교토대 국제연구센터 교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저서로는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1996, 도서출판 우석)과 'Korean Cultural Values: Community and Change' (1995,

East Rock Institute) 등이 있다. 지난 1월 3일 MBC 다큐스페셜 '성공시대'에서 소개된 바 있는 전박사는 주미전권대사를 지내고,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 강단에 섰던 남편 고 광림씨와 함께 슬하의 6남매를 모두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길러냈다. 특히 그녀는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인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재미한국인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편, 지난 1985년 동양연구소를 세우고, 한국사회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대사의 역할까지 맡아왔다.



삼바와 아리랑... 지난 2일 서울캠 불상 앞에서 남미 전통음악과 우리 전통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합동공연이 열렸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신명나는 리듬가락에 맞춰 많은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대학가 사이버 강좌 급증

“가상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본교 7개과목 2천여명 수강 ... 성숙한 학습의식 아쉬워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에 맞춰 가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교육방법으로 가상대학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15개 시범 및 실험운영 기관(단독 8개 대학, 컨소시엄 7개 기관)을 포함 74개교가 가상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숙명여대를 비롯한 일부대학은 일반인 대상의 재교육을, 대부분의 대학은 재학생 대상으로 운영하거나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 대학간의 학점상호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교 가상 대학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창작과정 전문과 교육을 실험·단독운영하고 있다.

97년 봄 학기부터 일부 과목에서 실험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해오던 98년 6월 계절학기부터 '사이버 창작 입문'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가상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사이버 작문 I·II, 멀티미디어 개론, 정보기술의 이해'를 비롯한 7개 강좌가 개설되어 교수

19명, 조교 29명, 학생 1천9백66 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과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그 양을 늘려 학생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수행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강좌는 웹(web) 상에서 게시판, 토론방, 대화방 등의 기능을 활용, 학생들의 격의 없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작문 지도를 맡고 있는 이진(사회학) 교수는 "교실 수업과 달리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 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성숙함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출석이 필요 없는 '반만찬' 강의라는 인식이 깔려있어 적극적인 비판과 토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수업을 글로써 진행해야 하는 수업 방식 때문에 '문자'로 전

달하기 힘든 것들을 '말'로 전달해야 하는데 멀티미디어 제작도구의 미비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체계의 불명확성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체계가 일반 교과와 같기 때문에 여러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원활한 가상 수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성숙한 태도와 컴퓨터 보급률과 멀티미디어 제작도구의 확충, 교실수업에 비해 강도 높은 노력과 시간 소모에 따른 합당한 지원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실험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발과 내실 있는 교육내용이 준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가상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병행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신입생 토익점수 향상

서울캠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지난 2월 22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모의토익시험결과를 지난달 17일 각 학과별로 통보했다.

이번 모의 토익시험에서는 9백90점 만점에 8백95점을 받은 최지은(경영학부1)양이 최고 득점을 기록했으며 그외 25명의 성적이 우수자들도 600점을 넘기하는 좋은 성적을 얻었다. 2073명 응시생 전원의 평균점은 전년대비 30점이 향상되었다.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박주영(문과대 일문1)
 - ▲이혜신(문과대 일문1)
 - ▲박종민(문과대 중문1)
 - ▲김성엽(이과대 자연과학부1)
 - ▲박기린(사과대 사회과학부1)
 - ▲이정은(사과대 사회과학부1)
 - ▲장원희(사과대 북한1)
 - ▲김준주(경상대 경제통상학부1)
 - ▲방재영(정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1)
 - ▲김지혜(인문대 국어국문학부1)
 - ▲정미혜(인문대 국어국문학부1)
 - ▲최창호(자연대 수교1)
 - ▲김현영(상경대 관광경영학부1)
 - ▲이소라(상경대 관광경영학부1)
 - ▲허윤영(상경대 관광경영학부1)
- 이상 4월 5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아름다운 동국을 새겨주십시오. 그때 그 순간!

동대신문사는 창간 49주년을 맞이하여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사진을 공모합니다. 서울·경주 교정을 오가면서 뜻깊은 추억이 새겨진 곳이나 아름다운 사계(四季)를 담은 것이면 됩니다. 흑백·컬러 제한은 없고 규격은 4×6 이상이며,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입선된 작품들은 신문지면에 게재하고 소정의 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제출하실 때에는 촬영장소와 일시, 주제를 간략하게 적어 동봉해 주십시오. 동국의 명장소, 명장면, 소중한 추억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세가 끝나면 작품들을 한데 모아 사진전을 개최한 후 사진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 (02)2260-3491, 2 (0561)770-2057

동대신문사

등록금 협의 계속 진통

총학 지난 1일 2차 총괄기 진행 ... 지속적인 대화 필요

지난 1일 진행된 '하자 10개 요구안 쟁취를 위한 2차 총괄기' 직후 학생들이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등록금 문제 등을 놓고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간의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1차 총괄기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도서관 앞에서 4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총괄기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삭감 등 10개 요구안의 즉각적인 수용과 총장과의 공개 면담 등을 요구한 후, 본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교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대화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총장과의 공개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열렸던 학교당국과 학생대표와의 면담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 홍치유 부총장, 오정수 학생처장과 정용길 기획조정실장 등의 학교 측 관계자와 학생대표로 김호중 총학생회장, 성나현 부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면담에서 학생 대표들은 △적립금의 조성 중단 △병원 건립 등에는 등록금을 사용하지 말 것 건립에 관련되는 예산인 건설기계정비는 그 동안의 적립금을 활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모든 적립금은 학생들의 장학금, 교직원들의 퇴직금, 해외과연연구기금 등

의 목적이 분명한 학교운영기본경비다. 이는 국내 타대학이나 외국의 경우도 좋은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많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학교시설의 건립·개보수·유지·대체를 위한 건설 기계정은 감가상각비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의과·한 의과 대학들의 실습장으로 활용될 병원건립에 일정 정도의 교비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함께 논의됐던 재단적립금 확충문제와 학부제 위원회 건설 등의 안건 등은 기존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선진 학원자주화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학내 문제에 대한 선전작업을 통해 학내 여론화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학교 당국과의 대화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



지난 1일 도서관 집회 후 본관으로 진입하던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가 있음을 비쳤다.

학교 당국 또한 "대화는 언제든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철주 기자
cows@cakra.dongguk.ac.kr



해오름식 ... 이번주를 전후해 각단체 해오름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범대, 생지대, 아총, 동연 등이 이미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고 예술대는 오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경상대 해오름식이 진행되고 있다.

권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총여 서신경화·김이가양 조 당선

이과대·법대도 학생회 건설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진범·영문4)는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와 단과대 미선거지역 정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번 선거에서 불대, 문과대, 공대, 정산대 학생회와 정산대 대의원회는 후보 미등록으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해 대표자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됐다.

13대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서신경화(철4), 김이가양(철4) 조가 총 유권자 5천77명 중 2천5백59명이 투표해 50.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2천2백57

표(88.2%), 반대 148표(5.8%), 무효 146표(5.7%), 분실 8표(0.3%) 등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김이가양은 "지난 1년간 총여의 공백기를 극복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일반대중들에게 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충실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15대 이과대 학생회 학생회장으로 한병준(물리4)군이, 12대 법대 학생회는 조성흥(법3)군이 당선됐다.

단과대 대의원회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다.

△이과대=15대 이과대 대의원장으로 김기만(화학4)군이 당선
△사과대=12대 사과대 대의원장으로 김용태(행정4)군이 당선
△경상대=31대 경상대 대의원장으로 김준배(무역3)군이 당선
△생지대=31대 생지대 대의원장으로 김구(식자4)군이 당선
△공과대=21대 공과대 대의원장으로 김태하(산공4)군이 당선
△사범대=31대 사범대 대의원장으로 최명수(수교4)군이 당선

예대, 오는 7일 해오름식

예술대 학생회(회장=이재연·미술3)는 오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학술관 앞 광장에서 해오름식을 개최한다.

7일의 해오름식에 이어 8일에는 선후배간의 축구대회를 개최해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예술대의 한 관계자는 "신인생을 비롯해 재학생 모두 단합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협 우정 장학금 신청

생협에서는 본교 학생 조합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교내·외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생협 우정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특히, 매년 1회 지급했던 것을 1999년부터는 년 2회(1학기, 2학기)로 확대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및 장학금액
 - 지급대상 : 본교 학생 및 조합원 22명(1학년 제외)
 - 장학금액 : 기성회비 전액(W543,000)
- 지급절차 및 일정
 - 서류 접수 기간 : 99년 4월 6일(화) ~ 4월16일(금) 오후 5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생협 사무국(혜화관 1층)
 - 장학금 지급
 - 가. 지급일시 : 4월 20일(화) : 11:00
 - 나. 지급장소 : 생협회의실
 - ※ 장학금액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 예정
- 신청자 자격조건
 - 보호자의 재산세 납부액이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및 용자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
 - 학교 장학규정에 미달되지 아니한 자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생협 양식)
 - 보호자(등록금 조달 및 가족부양자)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1통
 - 보호자 소득세 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급여 생활자는 98년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성적증명서 1통
 - 보호자 은행 통장 사본 1부(장학금 수령 통장)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자연재해피해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 적격 가족 입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새 학생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새 학생증의 특징

새 학생증은 기존의 학생증에 부착되었던 바코드 이외에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S)가 부착되고 비접촉 IC칩(RF-IC칩)이 내장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M/S는 현금 및 직불카드 기능을 하고, RF-IC칩은 교내선불카드기능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한다. RF-IC칩은 IC칩과 무인태나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가능한 16개의 섹터가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새 학생증카드는 현재 학생증, 도서관 출입, 도서대출 및 반납, 현금·직불카드, 교내복지시설(식당, 매점)이용, 버스카드도 사용가능 하며, 앞으로 지하철카드·복사카드 등으로도 확대 이용할 계획이다.
- 새 학생증 이용방법
 -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도서관 출입은 RF-IC칩과 바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대출 및 반납은 바코드를 사용합니다.
 - 교내복지시설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용하나요?

교내복지시설 중 상록원 식당·매점과 동국관 식당·매점(개관 이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위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상록원, 동국관, 제일은행 출장소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서 미리 금액을 충전하여야 합니다.

충전은 무인충전기에 제일은행 카드를 얹은 다음 정해진 위치에 학생증을 내려 놓고 금액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이 통장에서 학생증에 내장된 RF-IC칩으로 이체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제일은행카드 리딩→정해진 부분에 학생증 위치→금액버튼 선택→완료

위 복지시설 이용은 학생증을 식당 배식대 또는 매점 계산대에 설치된 리더기에 얹히고 표시창에 나타난 잔액과 이용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충전시 충전금액의 3%(예:2만원충전시 600원)가 보너스로 충전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학생증은 RF-IC칩과 무인태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테나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구멍을 뚫어서는 안됩니다.
 - 도서대출·반납시 학생증의 뒷면 M/S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증은 바코드를 읽은 후 대출기로부터 최소 20c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스피커 등 자성이 있는 곳을 피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M/S가 손상될 경우에는 은행에서 별도의 직불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연구실험실 단기유급 연구조교 모집

교육부에서 과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으로 대학졸업 미취업자 대상의 연구실험실 단기유급 조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30명
- 모집대상
 -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신규 미취업자
 - 96년 이후 졸업자(졸업후 군복무자는 전역시기를 졸업년도로 간주)
- 모집대상 제외자
 - 대학원 및 대학재학생인 자
 - 96년 이전 졸업자
 - 98년 단기유급조교 근무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졸업 및 성적증명서, 소속 대학장 추천서 각 1부
 - 경제사정이 특히 어려운 경우 관련증명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 실직증명서
 -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 세대원 전원 무소득 증명서
- 신청접수 : 99. 4. 1(목) ~ 4. 8(목)
- 접수처 : 소속 대학교학과

특 강

- 99년도 취업동향과 전략 -

기업 인사 실무담당자가 보고 느낀 최근의 취업동향과 이에 따른 취업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아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아래와같이 취업특강을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모집인원 : 99. 4. 7(수) 오후 2시
- 장소 : 학림관 소강당
- 초빙강사 : 김병구(삼성그룹 인사과 부장)

서울캠 학생처장

동약로



외면된 권리

아침부터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강의실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도서관 건너 밑에는 웅기웅기 모여있는 각 단대의 일꾼들이 10대 요구안 관철을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가 없어이지.”

“기껏 도서관 왔더니 쫓겨나면 무슨!”

학원 자주화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한 학생회 일꾼들의 열띤 합성에 보내는 몇몇 학생들의 냉담한 반응이다.

이들은 “너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쫓고 있어서”, “단순히 구호나 열에 그칠 문제라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겠다”며 유유히 쫓겨나고 있다.

비단 이 학생들 뿐만이 아니다. 당장 이번에 낸 등록금이랑 도서관 복지를 향상 시켜달라는 실질적인 요구안이 나왔지만 분명히 여느때와 다름없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한번쯤 고려해봐야 할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관계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양 지나쳐 버린다.

본관에 들어갔을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적립금 없으면 학교가 넘어가!”라며 소리를 지르는 한 교직원들의 말에서 적립금이 당연하다는 식의 학교 당국의 입장을 느낄 수 있다. 적립금은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의 건축비로 쓰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우리들의 등록금에서 적립한다는 말인지, 학생들은 정말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쫓겨나고 있는 학교당국. 이제는 뭔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비전향 장기수 장병락씨를 만나

“통일일꾼으로서 정체성 찾고 싶어”

지난 2월 25일, 대전 교도소를 나오는 비전향 장기수 장병락씨(66세) 눈에서는 37년간의 회한이 서린 눈물이 흘렀다. 이는 향린교회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석방환영대회’까지 이어져 그의 손에는 시종일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이로부터 한달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4월 1일, 갈월동에 위치한 만남의 집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이날은 감옥안에서 친분을 쌓았던 고 진태운씨 제사에 참석하러 전주로 떠나기 위해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새벽 산행은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이라고 한다. 산행을 마친 장병락씨는 함께 출소한 우용각, 양정호, 김익진, 박왕규씨와 서둘러 식사를 함께 하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처음 외보는 서울역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며 그는 자주 주위를 둘러 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긴 세월 동안 도움

을 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는 장병락씨는 “처음엔 철저한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방담한 시선뿐일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념을 떠나 어쩔 수없이 우리는 한민족이요. 한 혈육임을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 많았어”라며 말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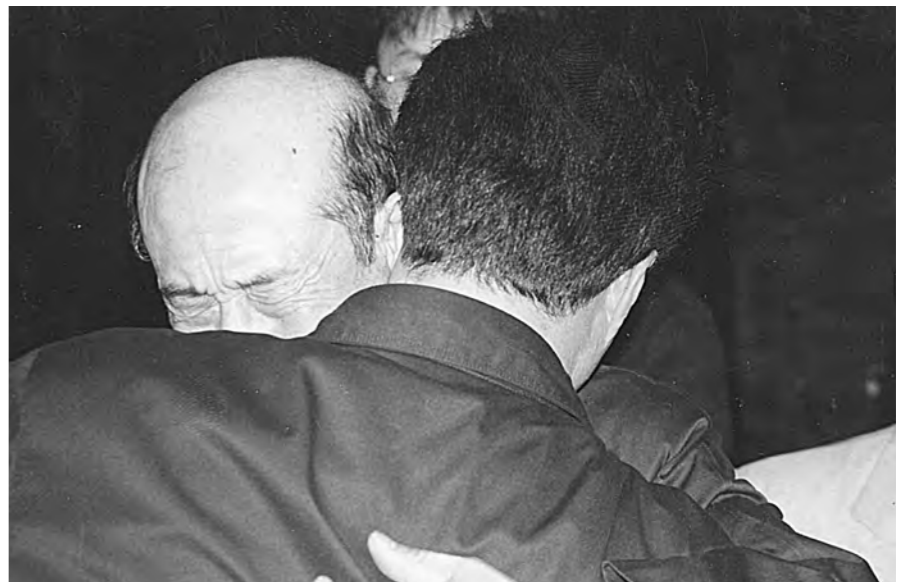
특히, 28세 때 인민군 장교였던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지만 3개월 된 아이를 두고 남파된 이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기에 94년부터 편지와 면회를 통해 알게 된 본고 국교과 89학번인 김영주씨가 딸처럼 애뜻하고 정이 간다고 한다.

이처럼 정을 나누며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 교향인 원산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묻자 “가족들이 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북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내 경우는 이렇다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국군포로와 맞교환을 해야한다는 상호주의를 비롯해 남한사회에 우리들의 북송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서 단시일에

이뤄질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모든 상황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명쾌한 대답을 해 줄 수가 없네”라며 북송문제와 관련해 같은 비전향 장기수일지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국군포로와의 상호교환에 관해서는 “짜이 안 맞는다”라고 간단히 잘라 말한다. 즉, 남측이 국군포로 귀환을 원한다면 인민군 포로를 송환해야 짜이 맞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수 십 년이 지난 지금 남북 모두 포로의 존재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환 방법상의 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특사 이후 한창 논란이 일었던 북송 문제가 지리멸렬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했다. “우용각씨는 어떤 단체에서 컴퓨터를 기증한다더구요.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배울까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아직 모르겠네”라며 지금은 심신의 혼란을



눈물 ... 지난달 11일 향린교회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석방 환영 인사에 장병락씨가 눈물로써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정리해야겠다고 한다. 안보논리에 의해서 짓눌려왔던 사상의 자유를 위해 비전향 장기수들은 존재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지 않느냐는 말에 “각 인권·사회 단체에서 우리들을 조국통일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지. 물론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중 몇몇은 연단에 오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건 불법이 아닌 비법이야. 우리가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고 보안 관찰 대상일 뿐이지.”라며 남한사회에서

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서울역 시계탑 바늘이 10시 30분을 가리키자 장병락씨는 서둘러 전라산을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삼십여년 만에 처음 타는 기차라 개찰구에서부터 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단대의 희생자인 비전향장기수들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남북갈등이 하루빨리 종착역에 도착하길 염원해 보았다. 이미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4·2 한총련 총궐기

“민중 생존권 쟁취·교육재정 확보하라”



학내 집회 후 모인 학생들이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교육침탈 분쇄와 국가교육재정확보를 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정=윤기진 명지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총궐기가 지난 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치

졌다. 이날 총궐기는 지역별로 진행된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3천여명의 학생들이 시내 곳곳에서 거리 선전전과 산발적인 집회를 통해 담면한 민중생존권문제와 청년실업문

제, 교육의 공공성확보 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각각 학내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1차로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1차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 뒤 도로를 점거하면서 거리에 몰려든 수많은 시민들에게 한총련 궐기와 주한 미군 철수의 당위성과 민중생존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충무로의 대한극장 앞까지 가두시위를 펼쳤다.

그 뒤 오후 7시경에는 종로 3가역 광장에서 재집결한 가운데, 1시간 여 가량 정리집회를 가졌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또한 이날 ‘반민중적 구조조정 저지와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전국학생총궐기’를 개최해 △정부의 반민중적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교육의 공공성과 민중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학의 서열화 정책 철폐 등을 외치며 국가교육재정 확보, 정리해고 반대, 대학생 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총궐기는 오는 16일부터 열릴 예정인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노동자 투쟁을 앞두고 진행돼 이후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의 연대 투쟁에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3·27 민주노총 민중연대 투쟁 결의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할 듯...대정부 투쟁 본격화

지난달 27일 ‘정리해고 철폐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민중연대 투쟁 결의대회’가 ‘정리해고 철폐와 민중생존권 쟁취 및 IMF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대책위 준비위원회’ 주최로 종묘에서 개최됐다. 전국 19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노총의 이날 서울 종묘집회에선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서총련)의 사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고용주 사무총장의 IMF 체제 반대’에 대한 성명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대회사 △민주노총 산하 각 단체들의 투쟁사 △이수희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민주노총 4대 요구안 수용’에 대한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그리고 대회사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IMF체제에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패배주의이며 수백·수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탄생된 조직인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는 선봉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1천3백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전 민중과 김대중정권에 선포하는 자리”라며 대회를 마쳤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안정적인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공안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건설일용노동자 조원을 구속하는 등 노동계 탄압에 대해서 오는 4·10일 민중연대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5월 노동절에 이르는 4·5월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사정 위원회 탈퇴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노총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조항 삭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사전 실질 합의 등 6개 요구 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을 시 4월초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총파업투쟁을 벌여나가기로 전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투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지지부진한 정부개혁 진단

논단

국민적에너지 결집시켜 국가개혁 추진해야

지난 3월 8일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사 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를 통하여 제2차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때만 해도 4개월 동안 46여억 원을 들여 만든 개혁안에 정부는 매우 고무된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 스스로 바꾸었던 것을 다시 개편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직뿐만이 아니라 기능까지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꾸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시나 하고 기대했던 소박한 국민의 기대는 여론에 편승해 왔던 정부행태 그대로, 이번에도 역시 옹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국차차원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사실 무엇을 개혁한다는 것이야 말로 매우 피곤하면서도 긴 여정이라 즉흥적인 판단은 절대 금물이다. 김대중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공공부문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조금의 개혁마인드와 미시적 안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보다는 사람에 의존해 왔고, 시스템을 개혁하기 보다는 책임자를 갈아치우는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발상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원칙, 무기준, 무규범 상태에서 정부개혁을 추진하다보니 욕심만큼 실제 결과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변신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부문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과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가적 개혁의지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이번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이념을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 근거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소위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시장경제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비

전 자체가 불확실하고 동시에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특히 과연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정부개혁이 시장경제 논리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다보니 개혁정책을 총지휘하는 사령탑이 흔들리게되고 비전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무원칙한 전락까지 동원되다보니 정부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 자초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개혁주체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했는지 모르지만 개혁에 대한 욕심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8년 2월 대통령취임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백대 국정과제를 신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98년 6월에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1백개가 발표되었다. 이어서 10월에 출범한 제2국무위원회는 21대국정과제를 내놓더니 이어서 7개 핵심개혁과제를 강조하였고,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정부는 지식기반산업육성을 비롯하여 핵심과제 1백3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 다. 한마디로 도무지 어떤 기준에 따라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동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바로 개혁에 대한 과욕



심익섭 사파대 행정학과 교수

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욕심이야말로 개혁의 순서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하는 제약요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더이상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도 없고, 개혁을 미룰수도 없다. 정부개혁은 사회변동과 맞물려 있으며 동시에 국가발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난 1년을 냉철히 반성하고 겸손하게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개혁을 단순한 아이디어 경쟁이나 일시적 유행처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정부개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개혁의 기본틀을 다듬고 심기일전하는 정부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국가적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가발전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한 후,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설

미국은 전략적 공습을 중단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의 유고 공습은 코소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달 24일 시작된 나토의 유고 공습은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의 '인종청소'를 더욱더 가열시켰으며 수십만명의 코소보 난민을 양산해냈다. 더욱이 지난 3일에는 유고연방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폭격을 개시, 이번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하고 있다.

창설이후 처음으로 주권국가의 내전에 개입한 나토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는 군사위임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나토의 유고연방 공습의 경우 미국은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무력군사행동을 단행했다.

또한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동안 지속돼온 터키 내 쿠르드족 문제나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독립운동 등 세계의 수많은 분쟁지역의 인권유린에는 방관을 일삼던 미국이다. 따라서 이번 코소보 사태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코소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아랍세계의 중심국가들을 규합하여 석유원천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러시아 포위망을 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공산주의 정권이라 할 수 있는 밀로세비치 정권은 미국입장에서 볼 때 가치관이나 체제면에서 혐오와 파괴의 대상이다. 지난 2일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2주만에 재개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속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지하듯 지금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가 아니다. 미국은 더이상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인권의 수호는 국제법 질서를 파괴하는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경주캠 독자성의 내적 기반을 다지자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사회적배경과 함께 교세확장, 재정난 타파의 내적배경으로 설립추진된 경주캠이 21주기를 맞이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면에서 서울캠에 의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경주캠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갈등의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즉, 지방 캠퍼스 한계로 독자적 예산집행권이 없다는 것과 그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상대적 부실, 그리고 지리적 격리로 인한 심리적 괴리감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형성된 정서적 문제의 심화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때 지난해 10월 송승장의 자치권 확대발원을 시작으로 지난 달 23일 경주캠 교무회의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경주캠 자치안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바래왔던 염원이 실현된다는 것과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여간 설레고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당일 교무회의에서 논의된 안전 중 기획처 신설, 교원의 자체선발, 교환학생 선발시 경주캠 교수의 참여 등은 독자적 예산과 행정집행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경주캠은 독자적 종합대학의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만족해서는 안된다.

내적인 독립만 강조하고 외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를 외치는 사고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경주캠 자치권의 의미마저도 퇴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지역대학으로 입지를 굳혀나간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차츰 경주캠의 자치권이 증대되는 가운데 구성원들 역시 이를 수행해 낼 내적 기반을 충실히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문제 “잘못된 정보관이 부른 인권유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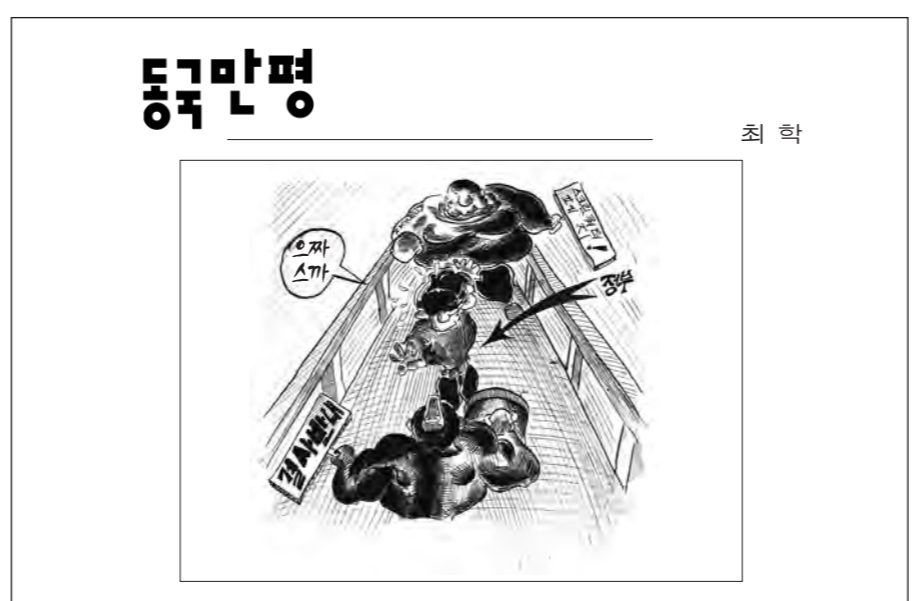
관련법규 개정·제도보완 선행시급

고3 입시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학습지 판매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하는 PSN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이라는 것이다.

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유번호를 사용자 임의로 남길 수 있는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법운동 관계자들은 최근 '보안 소프트웨어를 해커가 외부에서 조작할 경우 정보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독일의 컴퓨터 전문지 c.i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아예 PSN기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판매된 PSN기능이 내장된 펜티엄칩이 회수될 때까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운동 및 혐의서명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최대 사례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유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인텔사의 펜티엄III와 노트북용 펜티엄II 칩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인텔측의 해명은 사용자들이 거쳐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용 목적 등을 자동 전송하는 PSN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 등의 인터넷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인텔사를 사생 활동해결을 위해 고발해 공동 불법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한편, 국내 PC통신모임인 진보네트워킹은 2월말 발매된 펜티엄III 칩 및 노트북용 펜티엄II 칩에 내장된 고유번호(PSN)전송 기능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며 불법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인텔사에 대한 혐의서명을 각종 통신망을 통해 받고 있다.



해 받고 있다. 또한 정보연대(SING),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등의 여러 단체들은 각종 집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 인텔사 불법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21C가 다가올수록 정부는 개인의 생활환경 침해뿐만 아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제까지 일으키는 정보 유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방지 기술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 수집

에 관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커들의 개인 정보 유출 기술 또한 높아진다는 모순을 감안할 때, 무조건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개개인의 지구책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보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현 추세에서 정보화 사회라는 미명아래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송재훈 기자 jaeun79@cakra.dongguk.ac.kr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4·19를 기념하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제30회 4·19기념 등산대회, 경주캠퍼스 제19회 4·19기념 등산대회. Includes details for both events, a schedule table for the Gyeongju campus event, and contact information.

학 생 처 장

남한 첫 북한소설 '장백산'

북한, 더 이상 낮설지 않다

평양 뒷골목 강파 등장 '평범한' 소설...탈북자 전체 삶의 기록

'장백산'의 독자들에겐 두가지의 반응이 예상된다. 북한전문가들로부터는 '탈북된 탈북자들의 고백서'라는 논리적 비평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스틸러'라는 일반독자들의 감상도 있을 만하다. 실제로 '장백산'은 '통일'이나 '혁명'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쉬리'에서처럼 '재미를 위한' 상상력도 발휘하지 않는다. 대신 '장백산'에는 '북한식 서민'이 등장한다. 그것도 밀바닥 삶을 거부한 극단적 형태, 이른바 '평양의 뒷골목 강파'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그 주위에 농민시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꽃재비들의 활약과 밀거래,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파트 이웃들, 평양 영화대학 신세대 대학생들의 사랑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사랑, 섹스, 뇌물, 신분상승의 욕구, 말단 권력의 환포와 골육, 저항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장백산'은 이 평범한 인간사(事)의 소재적인 문제만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남한에서 출간된 '북한 소설'이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모른다. 심하게 말하면 남한사람들의 사고 속에 북한은 일종의 '신화'로서 존재한다.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은 금기의 영역이었다. 나아가 그 금기는 마음껏 각색되어 때로는 반공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때로는 탄압의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작용했다. 이 때 태동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은 냉전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 민중적 거부 의사였고, 따라서 반 독재투쟁과 일치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을 바로 알자고 하는 노력은 또 다른 냉전논리로 재구성 됐다. 남한 사회 일각에서, 북한은 미 제국주의에 철저히 저항하는 혁명의 나라로, 북한인민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혁명가들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했다.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렇지만 그토록, '장백산'에 나타난 삶의 단상들을 낱설게 치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분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우리

는 변함없이 냉전의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엄연히 탈북 전 시대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백산'은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사람에 의해 쓰여졌다. 물론 그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회의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백산'은 탈북자 전체의 삶의 기록일 수 있다. 게다가 저자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동학(同學)이기도 하다. '장백산'이 탈북자를 위한 북한 읽기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자못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는 소설 '장백산'의 몫만은 아니다. 독자들의 읽는 방식에 따라 '장백산'은 냉전시대의 또 다른 잔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 현실은 아니지만 시각만큼 탈북자를 지향해야 한다. '장백산'에는 북한의 산하와, 북한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눈물겹게 아름답지만, 또 그만큼 아픈



풍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선행적인 가치 판단이나 해박한 논리적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북한을 올바로 독해하고자 하는 실천은 '이데올로기 격률'이 아니라, '자기정체성' 되찾기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더 이상 미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정진
정치학 박사과정

'장백산'의 저자 정성산씨를 만나

"'살아있는' 그들을 보여주겠다"



- 1969년 평양 출생
- 북한 인민군 제2군단 정치부 작가 겸 연출가
- 평양 연극영화대학 영화연출학과
- 1995년 1월 귀순
- 1996년 본교 연극영화학과 입학
- 현재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직기로 활동

- 주요작품
- 95년 KBS 코미디 '인민군 동적그만'
 - 96년 극단 오미니 창단 연극 '코리랑'
 - 97년 단편영화 '자유로'
 - 98년 KBS 미니시리즈 '진달래꽃 필 때까지'

그는 외로워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잔마저 없었다. 2시간 남짓 그를 기다리게 한 기저는 준비했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었다. 북한 사람 정성산씨의 첫 인상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그의 외로움의 실체는 바로 그리움이었다. 홀로 남한에서 생활하지 했수로 벌써 5년이지만 북에 있는 부모님, 친척, 친구들을 생각하면 착잡하다. 추억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아름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억은 가슴 아픈 투성이다. '부모, 친척, 친구들'을 얘기한 소설, '장백산'. 북한 사람이 북한을 쓴 소설 '장백산'은 남한의 첫 북한소설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특별하다. "북한의 '안된 점'을 강조하는 미디어와 달리 '살아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정성산씨는 이념이 아닌 수많은

욕망을 발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사람들을 그려냈다. 사실 그는 북한체제를 거부해 탈북한 것은 아니다. 약관의 나이에서, 소설, 희곡 등 15편을 발표한 그는 소위 '잘 나가신' 작가였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체념하고 살아온 북한체제에 대해 회의가 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남한방송을 청취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을 때 뿐이었던 것이다. 수용소로 이송되던 중 차량 전복 덕분에 극적으로 탈북한 그는 처음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을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이 없었다면 아마도 타락했을 것"이라며 회고한다. 남한의 '얼음처럼 차가운 자본주의의 생존의 법칙'은 약전고투 끝에 살아남은 그에게 자살까지 결심하게 했을 정도이다. 고독! 이것은 그로 하여금 "글은 만들어지는게 아니

라 얻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 바로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4천5백명에 달하는 귀순자들을 먼저 끌어안아야 2천7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성산씨는 귀순자들의 안정된 정착을 보장하는 것이 통일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현재 3권까지 출간된 '장백산'의 다음 이야기는 귀순자들의 남한에서의 삶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소재를 '코리랑 고개'는 귀순자들이 남한에서 넘어야 할 고개를 상징한다고. 남한 사람인 기자를 뜨끔하게 한 그 여섯가지 고개는 다음과 같다. △사기 당하기 △교토사고 당하기 △알콜 중독 △남한의 첫 애인과 헤어지기 △개인 사업 부도내기 △다나던 회사 그만두기.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달하나 천가에

만남

동물은 어미의 몸으로부터 출산하여 몇 시간이 지나면 젖을 먹고 스스로 일어서고 추위를 이겨내고 자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란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면서 안정감을 갖고 눈빛으로 마음을 서로 통하면서 오감을 깨닫고 3~4년이 지나야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오랜 기간동안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배우면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는 인간을 낳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내는 살아있는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란 인간에게 있어서 흔히 어려운 처지를 당하거나 또는 죽음 앞에서는 어머니를 부르고 더욱이 인간은 어머니 행동과 생각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장하여서도 그 어머니의 성품과 행동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연병을 잃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이란 처음에는 효도를 의미하였고 차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의미로 변질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 즉 스승의 가르침의 깊은 은혜를 생각해 사부(師父)라고도 하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전세, 현재, 내세에까지 지속된다고 하여 사제삼세(師弟三世)라는 말도 있다. 스승의 인품을 느끼고 학문을 배우면서 인생의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부모 다음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평생 기억을 하는 것이다.

한의학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의성(醫聖)이라고 하는 '장중경(張仲景)'도 '장백조(張栢祖)'라는 스승이 있었고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선생도 '유의태(柳義泰)'라는 스승이 있었다. 현대의학에서도 레이더트 과정이란 스승과 제자의 도제적 관계로서 스승의 인품과 기술교육을 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같이 태어난 형제, 이웃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하고 또한 인간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 종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적 만남을 통해서 끝을 맺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치의 병에 걸려 졸지에 죽지 않는 이상 그 삶의 주기 속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한다. 즉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인 봄, 활동하는 시기인 여름, 창작하는 시기의 가을, 완성하는 시기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생활의 과정에 따라 나이와 처지에 알맞게 서로의 만남에 대하여 신뢰와 예절과 도덕성을 갖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줄 아는 가치관이 더욱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가치관이 부족한 것 같다. 마냥 충추고 서로의 즐거움을 통해서 가치관을 찾는 그들이 언젠가 건전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빨리 인간이 걸어가는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지혜가 성숙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강병수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신작안내

차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책)



불교교리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학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별로 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 책에서는 언어의 한계를 경험으로 해석해 놓았다. 본교 인도철학과 교수가기도 한 저자 정성석이 먼저 발표한 저서인 '100문 100답 불교교리'에서 일반 독자들이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을 본사에서 좀 더 쉽게 일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정성석 지음, 민족사 출판사, 정가 7천5백원

달라이징(영화)



칠혹같이 어두운 남지나해에 초호화유람선이 떠있고 그 주변에는 군사용 어뢰를 장착한 탐사艇이 유람선을 목표로 질주해 온다. 그러나 탐사선 대장 피니간이 이 유람선의 승무원들이 몽땅 사라져버린 유령선임을 간파할 무렵 자기를 데리고 온 일당의 정체가 해적임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일행중 미리 유람선에 침투해 있던 트릴리안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알게된다. 죽음의 공포는 악당들과 피니간의 대원들에게도 그 마기가 뻗어간다. 오는 17일 개봉예정. 브에나 비스타 코리아 배급.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새 천년을 준비하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문 선생님들 찾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필요한 인간은 인성과 지식이 균형있게 구비된 자질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참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각종 교육기관에서 헌신적으로 봉사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자들의 소명(召命)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동안 동국대학교에서 학문과 인격을 도야한 역량을 교육자들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그 거룩한 소임을 수행해오신 노고와 공로에 대해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모교인 우리 동국대학교는 지난 3년간에 걸쳐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그리고 정보통신 우수시범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그 위상과 성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교육자동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자동문들께서 개인 또는 직장 단위로 신상을 알려주시면 그 결과를 수합하여 금명간에 교육자동문 모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빠짐없이 연락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동국대학교 학부 및 각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교육에 재직중인 교사 전원
2. 제출기간 : 1999년 4월1일부터(1차접수 : 4월30일까지 1개월간)
3. 제출양식 : 개인별, 또는 재직 학교별 명단
4. 제출방법 : Fax, 전화, E-mail, 우편발송중 편리한 방법

학 교 명	직 위	성 명	졸업학과	자택전화	자택주소
			학예(대학원)	()	
			졸업년도	직장전화	직장주소
			19 년 월	()	

5. 제 출 처 : 동국대학교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02)2260-3794, 2260-8992~3/Fax(02)2260-3796
E-mail : develop@cakra.dongguk.ac.kr

6. 기 타 : (1)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다른 학교 재직 동문교사 명단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모교발전을 위한 제언, 모교와 동문교사간의 상호 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한 좋은 의견도 접수합니다.

동국대학교

정우식 동문에게 따뜻한 손길을

우식이 형에게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둘러본 여의도공원에 벌써 개나리와 목련이 꽃망울을 터트렸습니다. 이맘때면 동학에도 불기운이 완연하겠지요. 동학을 떠나 사회생활을 한지 4년, 험난한 현실이 발목을 잡을 때마다 청년시절을 함께 했던 동학의 추억과 그때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되곤 했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하며 항상 쟁겨주던 형은 후배들에게 언제 나 인기만점의 선배였지요. 절박한 현실과 전망의 부재앞에 힘겨워하는 후배들에게 형은 청년의 기분이 무엇이고 자기 삶의 중심을 어떻게 세우나가 할지들 몸소 실천했던 마냥 좋기만 했던 형님이셨지요. 그런데... 차돌처럼 단단했던 형이 쓰러지시다니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고 든든하기만 했던 형이었는데 거친 얼굴에 통통 부은 모습으로 병상을 지키는 형을 차마 볼수가 없어 가슴만 메어 옵니다. 지난 26일 세브란스병원으로 형을 찾던 날은 마침 형의 서른 한번 생일이었지요. 손바닥만한 케익이 촛불을 밝히고 생일축가를 듣는 형은 몹시 씩스러워 하셨습니다. 마냥 좋기만 한 우식이형. 세상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도 황폐해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수천만원의 치료비용과 장기이식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하지만 형은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창시절 당당했던 형을 후배들은 기억합니다. '학자부'가 한창이던 88년, 전라도 벌교 촌놈이었던 형은 1학년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철학과 신입생이었지요. 식별과 단식투쟁에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그 뒤 6년동안 동학은 형의 전부가 됐지요. 중문박치기라도 할 양이던 백골단을 향해 항상 선두에 섰고 머리에는 반창고가 떨어질 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91년 총학생회장으로 맡았을때 서울지역 통일운동의 중추를 맡았고 동대학생 운동사에서 학원 지휘와운동과 통일운동을 연결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형이 해냈던것도 알게 될 겁니다. 동학을 떠나 형은 청년포교활동에 뛰어들었고 전국을 누비며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몸을 돌리지 않았던게 최근까지의 형이었지요. 그러던 형이 하루라도 몸안의 피를 강제로 걸러주지 않으면 안되는 증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6년동안 몰던진 동학사랑의 열정을, 부처님의 자비를 화두로 안고 뛰어난 사회생활의 큰 뜻을 저희 후배들이 이루어야할것 없겠지요. 하지만 후배들은 다짐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든 현실이라도 형 혼자님께서 하지는 않겠다고요. 학교에 있는 후배들, 밖에 있는 동문들도 열심히 될 것입니다. 형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곳곳하게 병마와 싸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남철우 (농경제 94졸)

후원계좌 : 제일은행(114-20-147391 정우식동기모임)
조흥은행(313-04-583630 정우식동기모임)



매체비평

영화편

'썬 레드라인'과 '인생은 아름다워'

"전쟁이 낳은 최악의 상황에서, 한 편은 비감하게 또 다른 한편은 코믹하게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를 펼쳐낸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인생은 아름다워'의 로베르토 베니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작은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상 후보작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여러나라 영화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할리우드의 축제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 7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지 못했지만 썬 레드라인과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것이다. 이번에 나란히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 올랐던 '썬 레드라인'과 '인생은 아름다워'는 늘 허구를 창조하는 모티브인 전쟁과 사랑을 순환하는 작품들이다. 이 영화들은 모두 전쟁이 낳은 최악의 상황에서, 한 편은 비감하게 또 다른 한편은 코믹하게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를 펼쳐낸다.

'썬 레드라인' (테렌스 말릭 연출)의 무대는 2차대전 중 태평양의 과달카날섬. 일본군이 산 위에 벙커를 구축한 가운데 투입된 미 육군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이곳을 전략요충지로 확보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 영화는 뻔한 승전담 대신에 전쟁 속의 인간, 죽음을 앞둔 인간의 심리분석을 서정적이고 비감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적인 일본군도 같은 인간으로서 다루는 의외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싶노라면 '지옥의 묵시록'과 '플레툼'이 겹쳐 지나간다. 전쟁 한복판에서 삶의 의미를 반추하는 명상, 그리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주는 광경한 긴장감과 신경전을 동시에 담아가기 때문이다. 덧붙여 조지 A. 스콧이 잡아낸 열대 섬의 이국적 정취의 이미지

와 한스 짐머의 음악은 전쟁영화를 정적인 전쟁 서사시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올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나오자 이보다 더 생생한 전쟁영화는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썬 레드라인'이 나오자 이보다 더 격조 높게 만든 전쟁담은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감탄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대사와 같은 상황에 대한 묘사가 반복되어 지루함을 주며, 따라서 너무 길다는 생각도 든다. 외국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외국어영화상, 남우주연상, 드라마부문 작품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이변을 낳은 '인생은 아름다워'. 이태리 코미디 영화의 대표 주자 로베르토 베니니(주연, 각본, 감독)가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는 찰리 채플

린 이후 진한 인생의 페이스소가 묻어나오는 코미디영화를 만나는 기쁨을 준다. 1930년대 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의 전반부는 행복만 러브 스토리이다. 때때로 이태리 코미디풍으로 호텔 웨이터와 상류사회 아가씨의 신분차이를 넘어선 환상적인 연애담이 영화의 전반부인 것이다. 정작 흥미로운 건 후반부로, 아버지가 된 주인공이 아들과 겪는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고생담이다. 어린 아들을 위해 수용소생활을 탕커타기 게임으로 바꾸어 아버지가 꾸며내는 연극은 눈물 속의 웃음, 혹은 웃음 속의 눈물을 만들어낸다. 특수효과를 능가하는 코믹연기를 하는 베니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음과 사랑을 피워내는 뛰어난 재능을 입증해 낸다. 문화부

N 세대가 대학을 점령한다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

'사이버 스페이스는 너(산업세계의 기존 정권들)의 관할권 밖에 있다. 우리 세계는 너의 세계와 다르다. 우리의 세계는 모든 곳에 있으며 아무 곳에도 없지만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곳은 아니다. 우리는 인종, 경제적,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 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누구나 어디에서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반면 사이버 스페이스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중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너희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프론티어에 검문소를 세워 자유의 바이러스를 격리하려고 하고 있다. 당분간 전염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트를 지닌 미디어로 뒤덮힐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육체에 대한 너희의 지배를 받아들이지만 이제 너희의 지배에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가상주체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정신의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정부가 이전에 만든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존 페리 발로우 (1996년 2월 발표)

96학번 이하는 N세대! 이제 대학의 주인은 N세대이다. PC통신과 인터넷에 익숙한 N세대때문에 기존의 대학문화, '공동체적 연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권리찾기'란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N세대란 무엇인가

"TV보다는 컴퓨터, 전화대신 E-mail"

독립적 사고·신랄한 비판으로 대항문화 생성

현재 대학은 N세대가 점령하고 있다. 1977년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 그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놀이터가 아닌 PC통신과 인터넷에서 놀이를 즐겼다. 이제 정착단계에 이른 그들의 독특한 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존의 X세대나 Y세대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단지 상업 자본에 의해 만들어지고 아날로그 매체인 책,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NET를 통해 분명한 기술과 물질적 토대를 기초로 가상 공간에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 곳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뽐내고,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며, TV보다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전화' 보다는 'E-mail 보내기'에 더 익숙한 세대인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학교주변의 술집이나 영화관과 같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다. 컴퓨터가 놓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리잡고 앉아 게임이든 통신이든 접속을 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며 그들의 문화를 즐길 준비가 되어있다. 접속이 되면 이들은 무한한 정보 창고에 떨어진다.

다.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에서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까지 다양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검색해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만남이 없고 익명성을 담보로 펼쳐지는 가상공간은 그들 자신만의 공간속에 갇혀 현실과의 괴리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익명성을 전제로 너무나 노골적인 감정의 표출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N세대는 PC통신과 인터넷 상에서 어떤 매체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다. 정보가 범람하는 사이버공간에서 각자의 구미에 맞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 능력이 향상된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N세대는 대항문화를 생성해낼 힘을 갖고 있다. 새 천년을 이끌어갈 주역들이 바로 이들 'N세대'이다. 이들에게 숨겨진 폭발적인 힘이야말로 앞으로 생성될 대학문화의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자양소식

학교 안에서

국선도 단전호흡

우리민족의 전통 심신 수련법인 국선도. 단전호흡의 본가이며 옛날 삼국을 통일시킨 신라의 화랑도가 국선도이다. 이 국선도가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교직원, 타교생을 대상으로 수련생을 모집한다. 학생회관 2층 국선도 동아리 도울림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일부터, 학생회관 2층 영화원에서. 문의 015-8403-1034

학교 밖에서

오봉산 불지르다

판소리의 전통 양식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변형시켜 현대화시킨 작품. 특수효과를 동원해 배우의 손에 불을 지르거나 그림자극 및 인형극을 동원하여 불지르기가 풍성하다. 극중 살아있는 인물로 대사속에 판소리의 아니리, 곳의 사설등을 심어 신명의 세계를 펼쳐려는 게 기본이다. 다음달 9일까지, 대학로 알과 핵 소극장에서. 문의 764-5262

청춘예찬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순수한 실험정신을 가지고 이 극단을 창단하면서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작된 작품. 현 사회의 모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우리문화의 순수성을 살린다. 전 예술의 무장투쟁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 다음달 9일까지, 연극실습실 대화동 1번지에서. 문의 763-6238.

벚꽃동산

서울시립극단의 제5회 정기공연. 안톤 체홉의 원작 '벚꽃동산'을 지금 서울 시민이 쓰는 일상어로 새롭게 번역하여 극의 현실성을 높였다. 전체적으로 세기말의 침체기에 빠져있던 러시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이며, 러시아 혁명을 앞둔 불안한 새벽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담아낸다. 오는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문의 399-1645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N세대까지

베이비붐 세대

45년 2차 세계대전 후, 46년부터 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우리나라는 55년부터 63년) 60,70년대의 경제호황으로 배고픔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었고 TV를 보며 비틀스와 롤링스톤스에 열광했다.

X세대

66년부터 7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캐나다 작가 더글라스 쿠퍼랜드가 소설 'Generation X'에서 처음 사용. 그들의 특징은 'PANTS'로 요약된다. Personal(개별화, 개인화, 개성화) Amusement(심각한 것을 기피하고 즐거움 추구) Natural(자연에의 강한 욕구) Trans-border(나이와 성에 대한 구분을 거부) Service(서비스에 있어 하이테크와 하이티치를 추구)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그룹.

N세대

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아들 딸이기에 '베이비붐 에코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컴퓨터 문화의 신세대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며 영상정보매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킨다.

메아리

암행어사

▲권선징악의 결말이 대부분인 우리의 고전에서 암행어사는 심심찮게 등장한다. 번쩍이는 마패를 높이 들면 밖에서 주그려있던 부하들이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목청껏 외치며 들이치는 것이다. 그들 앞에 백성을 괴롭히던 탐관오리들은 엎드리고 백성들은 패자를 부른다. 극적인 상황반전이요, 가장 통쾌하고 화끈한 결말인 것이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에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파견된 특사로 초라한 행색을 갖추고 신분을 숨긴 채 일상을 관찰한다. 그리고는 마패를 치켜들어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 상벌을 내리는 것이다. 조선조 이전에도 굳이 제도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정을 베풀었다고 평가되는 왕들 중에는 종종 자신이 직접 신분을 숨긴 채 민정을 살피기도 했으며 가신에게 지시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일화가 많이 있다.

▲최근 한 백화점에서 '미스터리 쇼퍼'라는 제도를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한다. 이 제도는 고용된 사람들이 평범하고 객처럼 매장을 돌며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후 서비스 질이 상당히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백화점들에서도 시행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

을 때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러기에 옛부터 백성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관리들을 바로 단속하기 위해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도 같은 맥락의 제도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결과 속이 다른 이들이 많다. 대중앞에 선 정치인들과 재벌들 즉, 힘있는 자들이 그 도가 특히 심하며

대중 개개인을 또한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커다란 요인중 하나이다. 누가 보건 안 보건 능동적으로 일하며 스스로 보람을 찾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암행어사가 되어보자. 남대철 사회부장 eniac97@cakra.dongguk.ac.kr

소나기

미국의 유고폭격



△클린턴이 또 성(性)스런 일을 벌였나(?)
 △第三次大戦 임박 공부하지마.
 △코스보에 뭐가 있길래.
 △미국:너 까불면 차친다. 때리러 간다.
 유고:야미국 You Go(너 가!)
 △미국이 또 본편이를 하는 구나! IMF 우리공금!
 △스텔스기 격추 OK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미야토비치 공 안전다. 전쟁때문에.
 △그렇게 돈 벌고 싶나?
 △해맑은 아이들의 겁먹은 두 눈을 보셨나요?
 △'핵더덕'이 생각난다. 다음은 흑시 한반도?
 △You Go!(미국)
 △미국은 깎두기! 자기나라만 잘 되면 됐지, 남의 나라까지 신경쓰고.
 △클린턴! 섹스 스펀을 끝났다고. 정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죄 없는 유고시민의 목숨 < 미군포로 3명의 목숨
 △무서워요.
 △스텔스 아깝당.
 △미국경제호황이면 이웃나라 피 본다. 돈 많다 자랑 마라.
 △영화소재하나 만들었군.
 △국회의사당도 폭격해 주세요~ (국회의원 만평일 때)
 △언젠가는 진정 선택받은 민족이 누구이며, 그들이 믿는 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클린턴아, 니꺼나 잘 간직해.
 △인종차별, 네 주제를 알라.
 △강대국의 논리가 지배되는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도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코스보 반미자구와 초래!
 △우리에게 어떤 피해도 없음을 가슴을 쓸어야 하는 현실.
 △니, 사람죽이나? 너는 에미 예비도 없나?
 △언제 미국 어른들이 충구를 우리에게 돌릴지도 모른다 알아서 가자.
 △미국! 왜 재래식으로 유고를 공격해! 핵폭탄 써요. 이렇게 살바에 같이 죽읍시다.
 △"윤회살"을 절실히 믿고 싶다. 언젠가는 너도 그렇게 되겠지. 업을 받아야...

△2천년후, 미국이 또 다른나라 공격할때 Y2k 불인식으로 다른나라에 쓴 미사일이 백악관에 떨어지라고 난 기도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自治이다. 왜 남의 나라일에 발나라 대추나라 하는가! 잠자코 있으라!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화	비후가스(1500) 두부김치(1300)
수	삼선볶음밥(1300) 제육볶음(1500)
목	불고기백반(1500) 카레만두(1300)
금	잡채밥(1300) 한치회덮밥(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화	오징어까스(1300) 짜장밥(1300) 소고기볶음밥(1300) 오징어까스(1300)
수	갈비우거지탕(1500) 어묵이채비빔밥(1300) 떡볶이백반(1300) 어묵이채비빔밥(1300)
목	찰치킨치즈덮밥(1300) 설렁탕(1300) 후랑크만두강정(1300) 찹쌀김치덮밥(1300)
금	고구마비빔밥(1300) 닭갈비백반(1500) 비치리채비빔밥(1300) 고구마비빔밥(1300)

(단위:원)

서울캠 '운동...' 강의 태도 불성실

욕설·반말 남발 ... 사제시간 불신 초래

야간강좌를 듣고 있는 98학번 학생이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전공을 포함해 모든 수업을 야간에 듣고 있다. 그래도 야간강좌는 비슷한 처지의 많은 학생들이 강의내용 뿐 아니라 더 많은 의미의 대학 생활을 맛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데 내가 듣는 수업 중에 '운동과 건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겪었다. 야간 강좌에는 직장인들이 많고, 그들 중에는 마흔이 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 나이가 많다. 그런데 그 '운동과 건강' 강의 첫날, 강사의 태도는 참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 "여기서 나이 마흔 이상 처먹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그대로 쓴 것임)

도서관 자리차지

타인 생각해 자제해야

난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도서관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아침 8시 전에 오면, 사람은 없고 책만 있는 자리들. 일찍 온 사람들이 편찮은 자리를 맡아야 하는데, 늦게 와도 친구에게 부탁해 자리 맡아 놓은 사람들이 12시, 1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잠깐 왔다 가는 경우도 있다. 난 자리를 맡아 주는 사람도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의 우정으로 학우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리 맡기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해위도 안 되는 것이 도서관을 쓰는 양심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는 조그마한 양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와 더불어 총학생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구호를 도서관 앞에서 외치면 그것은 스스로 교육환경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총학생회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지만, 대학의 중심인 도서관 앞에서의 시위는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동대신문에도 바란다. 한 학기를 15주라 치면 시험기간 2주씩 두번, 수습기차 1주, 총 5주 동안 신문이 안나오고 있다. 1/3이다. 전쟁때도 신문을 발행하려고 애쓰는 기자들이 있다. 본인도 신문을 발간해 본 경험이 있어 그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기간동안 신문이 발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영훈 (ryu@hanmail.net)

게다가 말이 끝은 항상 반말과 욕이었다. 이게 어디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의 자세나 말투가 될 수 있는지. 주간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서 가볍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 수업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신문사에서 이런 글이 나가면 학생들의 여론을 얻어 그런 강사나 교수의 행동 거지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쓴다. 또한 총학생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줬으면 한다.

차우진(74jini@netian.com)

정각원 수업

"예절을 지키자"

며칠 전의 일이었다. 정각원 앞 마당에 '자아와 명상' 수업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새내기인 듯한 학생이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며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휴 물은 구두발을 정각원 창전 공덕비 하단에 툭툭 떨어 대면서. 잠시 후 통화와 흡연을 끝내고 옆에 있는 나무에 풍초와 함께 야-야, 가래침을 내뱉는 것이 아닌가. 이윽고 나와 그 학생 사이에 몇마디 타박이 오갔고, 여직에 가까운 사과까지 받았다. 당연히 내가 받을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가히 유감천만이었다. 만약에 담배사고 남은 거스름돈이었다면 정각원 나무에 버렸겠는가, 더우기 그것은 풍초나 가래침이 아니라 바로 양심이고 예절이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은 하루 평균 5~6백여명의 학생들이 정각원을 오간다. 하지만 그들이 오간 자리의 무질서함이란 쓸쓸하기 짝이 없다. 정각원 앞 마당까지 들진하는 자동차 택시 오토바이소리, 신발끄는 소리, 거친 말소리, 휴대폰 소리, 방석발에 두고 가는 씹는 껌, 휴지들. '요즘아이들은 다 그렇다'고들 한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리 만무하지만, 혹여 그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품위조차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는 어른들부터 종아리를 걸어야 할 일이다.

배선옥(경주캠 정각원 조교)

동악장터 (서울캠)
 △약기판! 오키리나(시중가 9만5천원) -?, 만도린(수공예 쓴적 없음)-? 절
 총원함, 015-8682-1308
 △맥킨토시 Lap top 컴퓨터 ①520흑백 ②프린터(style write II) ③modem 33,000원 018-245-5603(가격조절 가능)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윤석아, 귀 뚫은 거 축하한다. -94 진
 △우리의 영원한 등산, 부개(부끄러운 명계) 혜정의 생일을 정말정말 축하합니다. 인문학부 잊지 말아도...
 -멋진 친구들
 △진·언 귀영동이 현정(사과99)의 PCS개통을 축하합니다. 016-379-9178 많이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여 실맛나는 선분 아들이러 여러분. -인문학부 여학우
 △탈 창립제 수고 4.3만중대회, 4.10 길떠나기 사수! 그리고 멋진 민숙극 연구회 탈 99학번 친구를 사랑한다. 한번 찾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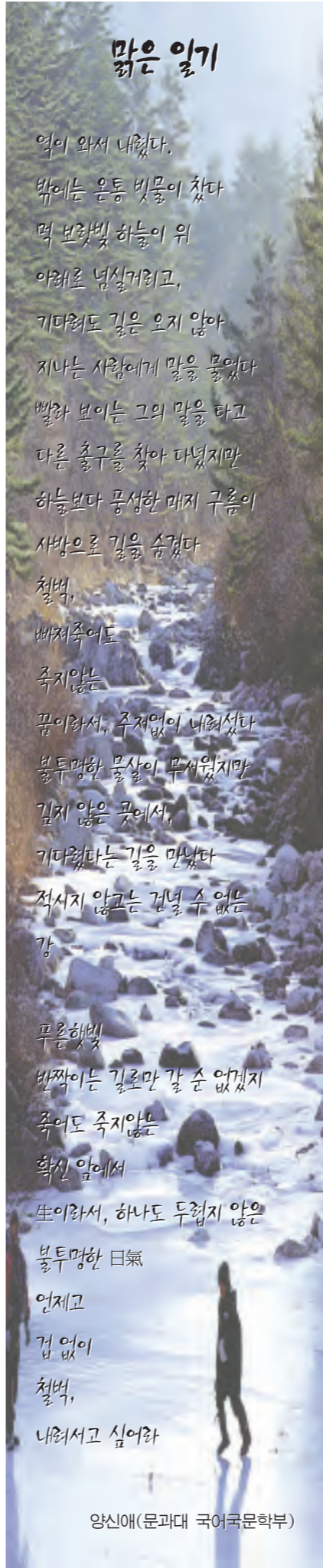
열심히 합니다

△ 부총님·총회장님! 학원자주와 투쟁에 꼭 승리해요. 우리의 권리와 정당한 투쟁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쟁취해 나갑시다!!
 -비오는 날에 투쟁 하는 모습을 보고
 △현수야. 고시공부 열심히 해서 꼭 붙어라.
 △형민이와 동명이, 두 명의 고시생의 앞날이 맨 날 먹는 라면뽕처럼 가늘고 길게 좌악 뽕기들...

인망글

축하합니다

△트래선배 복학 축하드려요. -겨레사랑
 △축하! 늦었지만 현정, 정수 1주년 축하해. -수교과 동기 석이와 병근이가
 △성태선배 늦었지만 생일 진짜 축하드



맑은 일기
 얼이 와서 내렸다.
 밖에는 온통 빗물이 찼다
 딱 보랏빛 하늘이 위
 아래로 넘실거리고,
 기다려도 길은 오지 않아
 지나는 사람에게 말을 물었다
 빨라 보이면 그의 말을 타고
 다른 출구를 찾아 다녔지만
 하늘보다 풍성한 매지 구름이
 새벽으로 길을 숨겼다
 철벽,
 배저죽어도
 죽지않는
 꿈이어서, 주저없이 내려섰단
 불투명한 물살이 무서웠지만
 길에 않은 곳에서,
 기다려라는 길을 만났어
 적시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
 푸름이백
 반짝이는 길로만 갈 순 없었지
 죽어도 죽지않는
 확신 앞에서
 쓰이어서, 하나도 두렵지 않은
 불투명한 日氣
 언제고
 겁 없이
 철벽,
 내려서고 싶어라
 양신애(문과대 국어국문학부)

모니터링

1268호 동대신문을 읽고...

'분할 납부' 기사 좀더 심층적으로 다뤄야

며칠 전인가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옆의 배란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해낸 적이 있었다.(물론 온발공 화우들 중 몇명이라도 서서 그걸 제대로 들어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근 삼사일 동안을 그렇게 해대는 말 중에 필자의 귀를 가장 솔깃하게 한 것이 바로 등록금 분할 납부가 드디어 경주캠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 등록금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다행이다 기뻐하면서도 등록금 70% 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내심 거슬렸던 필자는 마침 동대신문 3면(경주보도)에 난 기사를 본 순간 어느때보다도 꼼꼼히 읽어 보았다. 그러나 분할납부의 대상이러든가 방법, 미납자의 불이요 등에 대한 설명은 나왔으나 위의 조건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제기간에 등록을 하는 인원이 전체의 70%가 넘어야 한다는 말은 바뀌어 생각해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 등록금액이 일정 수위를 넘지 못한다면 분할납부 자체가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다는 분할납부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학교나 학생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곳이 '교육의 현장'인 이상은 학교에서 맡는 일정 정도의 부담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것이 학교 경영에 일반 기업 경영과 다른 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대신문에서 다음호에서라도 자세히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이동희(인문과대학 한문학 전공)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편집자에게
 지난 3월 22일자 동대신문 3면 하단의 학교 공지 사항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얘기하고자 한다. 3면은 전체가 경주 캠퍼스의 기사이고 공지사항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왼쪽에 있었던 교무처(?)의 공지사항이 서울과 경주의 공통 사항인 것 같아서 더욱더 바로 열란의 그 공지 사항이 공통의 공지 사항인지 경주만의 혼란스러웠다. 컴퓨터 수감에 대한 두 번째의 공지사항은 이번 학기에 컴퓨터 실습과 활용과목을 수강하는 나로서 더욱 더 관심을 끌었지만 그것이 서울·경주의 공통사항인지 알 수 없

편집자가 독자에게
 2면과 3면은 각각 서울캠과 경주캠의 보도기사를 실는 면입니다. 광고 또한 각각의 캠에 관련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독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각각의 광고에 대해서는 캠의 이름이 함께 붙여지며, 캠의 이름이 함께 쓰이지 않는 것은 양캠 공통의 내용일 때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기에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 답답했다. 차진화(이과대 자연과학부)

TEL : 22603491·2 / (0561)7702057·8
 FAX : 22791270
 하이텔 . 나우누리 PC ID: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공익의 세상보기

최 학 (5)

우리 이제 가슴을 펴시다.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 회장님! 그대 곁에 호우 회입니다. -호우회 일동
 △법(야) 3학년 과대 and 야생회장 그리고 부회회장 1인 3역으로 고생하시는 근우 형님!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후배가
 △공웅·재훈·재현 힘들었던 군생활 무사히 마치고 복학해서 다시 만나니 반갑다. 고생들했다. -L·C·W

열심히 합니다

△법(야), 학회장님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법(야)학우 일동
 △한번 기장은 영원한 기장 21기 가장 주홍이 파이팅!!! -호우회 일동
 △필하모니 MT재미있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8기일동
 △관광경영 농구동아리 Orgasm 우리모두 최선을 다해 우승 한 번 합시다. -김득

알립니다

△"동아리 구함" 95학번 예비역 3명이 동아리가 없습니다. 예비역도 환영하는 동아리는 연락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95法學 016-578-6714 or 019-502-5879
 △4월 한달도 못지모 알차게! 99, 98들이 오빠들이 사랑한다. -무쇠니팔 도협
 △우리와(역·철) 두 터프가이 영규와 대근이 몸건강히 군대 잘 갔다가 와(4/8 입대). 두너석이 같은날, 같은 곳으로 입소합니다. -98동기가

그리고...

△서러라비 다우회 20기 회장 장득이의 명복을 빌며... -白
 △3월을 넘기며... 은영이외의 사람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길... 그리고, 그녀때문에 힘들어 하는 그분도 시험 꼭 잘 되길 바랍니다. -K.H.M